

-자유의 침해 (물류)-

자유란 무엇일까? 네이버 지식백과에 따르면 “오늘날 자유는 '~으로부터 벗어남'이라는 소극적 의미 외에 '스스로에서 비롯함'이라는 원래의 적극적인 뜻 아래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함'이라는 의미와 함께 '자신이 세운 법칙에 자신을 종속시킴 = 자율적임'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라고 설명한다. 모든 인간에게는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본인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행동하고 스스로 생각함으로써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가 절대적으로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자유의 침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여 해를끼치는 것 이는 의외로 아주 빈번하게 일어난다. 세계적 단위 국가적 단위 개인적 단위등 많은 단위로 쪼개어진다. 세계적 평화를 위해 국가의 자유를 일정부분 침해할수 있고 국가안보를 위해 단체, 개인의 자유를 부분 침해 할수도 있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당연히 안되지만, 어찌면 당연한 것 일수도 있다. 그래서 노조가 생기고 자유,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 돈을 더 받기 위해 파업도 했다. 예전부터 크고 작은 기업과 직원들 간의 싸움이 빈번했다 그 이유는 본인들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기술의 발전 속도가 과속일 정도로 빨라지면서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점점 인간의 노동력이 필요가 없어지고 있다 사실 이 현상은 18세기에 산업혁명으로 이미 겪은 현상이다 18세기 당시 많은 기계가 발명되어 인간의 노동력이 필요 없어졌음에도 불과하고 인간은 버텼다 하지만 그때로부터 3세기가 지난 21세기 기술의 발전은 이전진짜로 인간이 필요 없을 만큼 발전했다. 인간을 카피하고 지금껏 인간의 고유의 것이었던 기술 분야에서 인간을 능가하는 AI가 등장하고 제어시스템과 다른 정보기술을 조화롭게 사용하여 산업 기계류와 공정을 제어, 사람이 관여할 필요를 줄이는 자동화가 발전했다. 이 चलना에 2019년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질병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나타났다. 사람간에 퍼지는 질병이기에 사람이 많은 장소는 위험구역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은 모두 주춤했다. 직종마다 차이는 있지만 작은 피해부터 엄청나게 큰 피해까지 피해를 입지 않은 기업은 거의 없다. 물류업도 예외는 아니다. 육상물류는 풀필먼트, 허브 등에서 집단감염이 문제가 되었고 항공물류는 여러 국가의 봉쇄정책으로 인해 한동안 이착륙이 쉽지 않았던 때가 있어서 피해가 엄청났다. 해운업도 마찬가지 이다. 전체적으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물류시장이 대폭 상승되어 운송지연과 검역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상승되면서 고객센터 만족도가 낮아지고 있다. 항공물류, 해운물류는 아직 모르겠지만 육상물류는 어느정도 무인화가 가능할 정도의 기술이 개발되었다. 이로 인해 기존에 일하던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있는 추세이다. '일자리를 잃는다' 이 말은 즉 일을 하며 돈을 벌 자유를 침해 당한다 라고 해석할수 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먼 미래도 아니다 조만간 곧 예상컨대 최소 4년 안에 기계들을 다룰 몇 명의 관리자들을 제외하고 그 외의 일반 노동자들은 실직, 즉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해본다. 공장 무인화를 실행하면 기업은 전체적으로 이익을 얻어 더욱 더 성장할 것이다. 기계를 들이면 인권비가 줄어들고 인명사고도 훨씬 줄어 전체적으로 이익을 보겠지만 그만큼 실직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양극화가 심해져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다. 기사를 찾아보면 실제로 cj 올리브네트웍스에서 5000평 정도의 의약품전문 스마트 무인 물류센터를 5월 착공했다고 한다 이 물류센터는 3만 파렛트 분량의 의약품을 보관할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AI와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DT신기술이 융합된 자율 이송 로봇, 자동창고, 무인운반차, 상하차 반자동화 설비, 셔틀, 자동분류 소터 등 무인화로 운영 가능한 자동화 설비가 적용된다고 한다.

또한 현대건설기계에서는 SLAM 기반 자율주행 리치타입 무인지게차를 개발했다고 한다. 자율주행 SLAM 기술을 채택해 최적의 경로로 운행할 수 있는 것이 특징으로, 바닥 유도체를 통해 정해진 경로를 주행하는 AGV보다 성능이 향상됐다고 한다 그리고 cj대한통운에서는 지난해 4월부터 기존 물류연구소의 이름을 'TES물류기술연구소'로 바꾸고 첨단 설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체 개발한 대표적인 물류 설비로는 자동운송로봇(AGV·Automated Guided Vehicle)과 자율주행이송로봇(AMR·Autonomous Mobile Robot), 피스 피킹(Piece Picking) 시스템을 시범운영중에 있다고 한다 이렇듯 물류센터의 자동화가 빠르게 진행중이고 발전중이다. 앞서 말했듯 무인화, 자동화로 인해 사람들의 일자리가 사라질 날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는중 이다.

우리는 멀지 않은 미래에 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인해 인간의 일할 자유를 침해당할 것 이라고 생각 한다. 솔직히 이 사태를 해결할수 있는 방법은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 애초에 기업들의 기술 발전의 목표와 무인화의 목표는 인간을 대체해 인건비를 줄이고 기업의 이익을 더욱 더 높여 가지고 오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멈출수도 없고 우리의 발전을 위해 멈춰서도 안된다. 기술의 발전과 무인화에 대한 나의 생각은 찬성이다 우리가 더욱 더 진보된 사회와 발전되고 편리한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발전은 꼭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들이 일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본다 앞으로 미래는 예측 불가하다 어떻게 무엇이 발전할지도 어느정도는 알지만 완전히는 다 모른다 요즘 발전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나는 우리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발전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글을 마무리 짓겠다.

출처

[인공지능이 분류하고 로봇이 옮긴다... 택배사, 물류 자동화 시동 : 네이버 뉴스 \(naver.com\)](#)

[현대건설기계 / SLAM 기반 자율주행 리치타입..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CJ올리브네트웍스, 1.7만m2 평택 물류센터..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자유'의 의미 \(naver.com\)](#)



[무인 지게차](#)